

총회 개회사

노유자 수녀(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6회 한국 가톨릭호스피스협회 정기총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오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현욱 국회의원님과 김문식 보건복지부 의정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저희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는 1992년 협회 발기총회를 시작으로 정기총회 6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년째 접어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저희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는 많은 뜻있는 분들의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협회에서는 홍콩 호스피스 연수를 포함하여 호스피스 제7호지 발행, 호스피스와 사별간호 주제의 학술대회 주제 및 세계병자의 날 행사기념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회원수에 있어서도 약 340명에 이르는등 점진적인 확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올 3월에는 제3대 지도신부님으로 주경수 신부님이 취임하셔서 협회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으며 기대합니다.

올 97년 한해에도 각종 학술세미나와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별히 분과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저희 가톨릭 호스피스협회가 조금더 대중들에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부지런한 걸음을 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의 정신을 조직적인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회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호스피스의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고 많은 격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호스피스 발전에 큰 관심과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호스피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이경식 교수님과 한충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개회사에 대신합니다.